

도남 조운제의 민족주의에 내재한 민주주의

정병설*

- I. 서론
- II. 도남 민족주의의 시대적 요구와 배경
- III. 민족의 한 지향으로서의 민주주의
- IV. 결론

<국문초록>

도남 조운제는 경성제국대학 조선어학급문학 전공의 제1회 입학생이자 졸업생으로서, 근대학문 제도 속에서 국문학을 처음 연구하고 교육한 분이다. 조운제의 삶과 문학에 대한 연구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이우성, 최진원, 김동욱 등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논문에서 그의 삶과 학문을 규정하는 키워드로 실증주의와 민족주의를 꼽았으며, 특히 인생의 후반에 대해서는 민족주의를 언급했다.

조운제의 민족주의는 늘 긍정적인 평가만 받지 않았으니, 일찍이 김동욱에 의해 일본 국학의 변용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탈민족주의가 학계에 등장한 다음에는 황종연에 의해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은 조운제가 말한 민족의 실질적 지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내린 판단이 아니다.

본고는 조운제가 내세운 민족의 실질 내용 중에 자주, 독립, 통일을 넘어서서 그 궁극적 지향으로 민주주의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조운제의 민족주의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는 찾아지지 않으나, 그의 문학연구와 사회적 실천에서 민주주의는 노년으로 갈수록 더욱 분명히 확인된다. 특히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운제의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민족건양회의 존재 또한 처음으로 논의되는 듯하다. 민족적 민주주의, 민주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조운제의 사상을 바라보아야 그의 민족주의가 제대로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

핵심어: 도남, 조운제, 민족주의, 민주주의, 민족건양회, 도남잡지

I. 서론

도남 조운제는 경성제국대학 조선어학급문학 전공의 제1회 입학생이자 졸업생으로서, 말하자면 근대학문 제도 속에서 국문학을 처음 연구한 분이라 할 수 있다. 광복 후에는 경성제국대학의 시설, 장서 등을 이어받은 경성대학의 법문학부장으로 한국 고등교육 재건에 중심 역할을 했으며, 이어서 경성대학과 10개 관립 또는 사립 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한 국립서울대학교의 교수로서 또 문리대 학장으로서 『국어교육의 당면한 문제』, 『국문학사』 등의 저서를 출간하며 국문학 연구와 교육의 기틀을 잡기도 했다. 조운제는 근대교육 제도 내에서 국문학을 세운 사람으로서 한국문학 연구의 역사를 살필 때나 미래방향을 모색할 때 늘 출발점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조운제의 삶과 문학에 대한 연구사적 연구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이우성, 최진원, 김동욱 등에 의해 제출되었다. 생시의 환갑 무렵부터 연구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국문학에 있어서 조운제의 위상이 그만큼 독보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과 학문을 규정하는 키워드는 실증주의 또는 민족주의였으며, 그중에도 민족은 조운제의 중년 이후를 대표하는 단어였다. 그는 자찬 묘지명에서 “민족에서 살고, 민족에서 죽다(生於民族 死於民族)”라고 했으니,¹⁾ ‘살아도 민족, 죽어도 민족’은 조운제의 삶과 학문을 관통하는 좌우명이었다.

이 글은 조운제의 삶과 학문을 규정하는 키워드로서 민족이 과연 무엇인지 그 실질을 찾으려는 시도다. 조운제 삶과 학문의 바탕으로 ‘민족’을 규정

1) 조운제, 『자명(自銘)』(『도남잡지』, 을유문화사, 1964, 369면). 이하 『도남잡지』의 인용은 책명과 면수만 표기한다.

하는 연구는 많았지만 정작 그 민족이 무엇인지 민족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민족의 실질과 지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민족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여 그 역사와 특징을 고찰한 것이 조운제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²⁾ 정작 조운제가 말하는 민족의 실질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물론 후기의 대표 저작인 『한국문학사』(1963) 등에서도 민족의 실질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었다 할 수도 있다. 그는 『한국문학사』의 마지막 장인 “제12장 재건시대”, 곧 일제의 식민지배를 끝내고 나라를 되찾아 재건이 요구되는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문학사 서술 대신 자신의 소회를 밝힌 자작시 한 수만을 적어두었다.³⁾

“북한의 하늘엔/ 붉은 기가 날린다네/ 같이 살 민족의/ 마음이 달라졌구나/ 아차! 생활은/ 둘이로구나/ 어허! 우리의 문학은 어디로?/ 아하! 나는 모르겠다// 재건! 재건! 재건은 우리의 과업/ 자손에 이 빛을 물려야 되겠다! 한나라, 한민족/ 문학은 하나이제! 한국문학만세!! (총 4연 중, 제3과 4연)

재건의 시기에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까지 치른 현실에서 노년의 조운제는 한국문학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나뉘고 무너진 국가와 민족의 현실에서 재건 하나만이 분명한 소명이라며 재건을 외쳤다. 결국 재건의 방향이 조운제가 품은 민족의 실질이자 지향이라 할 수 있겠으니, 그 내용을 따져보지 않고서는 조운제의 민족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조운제가 말한 민족의 내용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부정적 평가가 있었다. 김동욱이 조운제의 민족사관을 일본에서 전근대부터 내려온 국학의 변용이라고 지적한 것이다.⁴⁾ 자기 문화를 높이고 그 특질을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 민족사관과 국학은 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방향성 특히 근대 이후를 가지고 말하면 정반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동일은 “한편

2) 조동일, 『조운제의 민족사관과 문학의 유기적 전체성』, 『도남 조운제박사 고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76.

3) 조운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6(초판은 1963), 598~599면.

4) 김동욱, 『국문학연구사』, 『인문과학』 26,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2, 18면. 민족사관을 “일제의 국학 철학의 대신(遁身)과도 같은 것”이라고 평했다.

조운제의 민족사관은 일제 국학의 변용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은 딜타이의 영향이라는 해석보다는 더 무리한 것이다. 일제의 국학정신은 제국주의적인 민족주의인데, 조운제의 민족사관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이며,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민족주의이다.”⁵⁾ 조운제의 민족주의가 억압적 제국주의의 방향이 아니라 반억압적 반제국주의의 방향에 서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⁶⁾

1990년대 탈민족주의가 한국에 등장한 이후에는 비록 본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약간 더 구체적인 비판이 있었다. 2005년 김명호의 논문 「도남의 생애와 학문: 민족에 살고 민족에 죽다(生於民族 死於民族)」에 대해,⁷⁾ 황종연의 비판이 논문 뒤에 부록되어 있는데, 김명호는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로 규정하는 탈민족주의 또는 민족 해체론에 대응하여 조운제의 민족주의가 여전히 의미와 가치가 있으니 이를 해체하기보다는 민중적 민족주의 등으로 업그레이드 또는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종연은 조운제의 민족주의를 ‘종족적 민족주의’로 규정하면서 “도남이 상징한 종족-국민은 역사적으로 우연한 다른 정체성-젠더적, 계급적, 지역적 정체성들-을 통합하거나 복속시키면서 향존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들을 평등하게 고려할 여지가, 제가 안목이 부족한 까닭인지는 몰라도, 도남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남의 국문학은 “민중”이라는 말이 표시하는, 다양한 정체성과 정치와 문화에 대한 민주적 승인과 거리가 멀지 않을까, 오히려 유기체적 국가주의-유럽과 아시아에서 권위주의적 국가 체제를 낳은 국가주의-의 학술적 등가물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라고 말하면서, 아울러 민중적 민족주의 등으로 작금의 민족주의를 갱신해야 한다는 김명호의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의 민족주의가 “상이한 정체성들에 대한 민주적인 관용의 담론을 제공하지는 것일까요,

5) 조동일, 앞의 논문, 6~7면.

6) 조동일은 제3회 도남국문학상을 받으면서 시상식장에서 조운제의 국문학연구에 대한 비판을 이유, 방법, 목적의 셋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족의 수난이 국문학연구를 힘써 할 이유인가, 민족사관이 국문학연구의 방법이 될 수 있는가, 민족의 독립과 통일이 국문학연구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내놓았다. 조동일, 『도남학의 전통과 국문학연구의 방향설정』, 『도남학보』 3, 도남학회, 1980.

7) 김명호, 『도남의 생애와 학문: 민족에 살고 민족에 죽다(生於民族 死於民族)」,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아니면 이른바 국민총화의 헤게모니를 반복하자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일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민족을 공동체의 다양한 정체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결국 민족의 해체를 주장했다.⁸⁾

조운제의 민족주의가 과연 여러 상이한 정체성을 복속시키는 부정되어야 할 종족주의인지, 아니면 “해방·통합·저항의 긍정적 측면”⁹⁾이 있는 나름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시점에서 민족주의는 “국민총화의 헤게모니를 반복”하는 부정적인 것인지, 다양한 정체성을 포섭하면서도 지켜야 할 정체성 가운데 하나인지, 조운제의 민족주의에 대한 평가는 물론 나아가 21세기 탈민족주의 시대에 국문학에서 민족주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해답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광복 이후 조운제에게 민족은 다른 무엇보다 앞서서 시대적 절실성이 있었다. 제국 일본으로부터 독립해 자주적 민족국가를 세워야 하는 시기에 한국문화와 국문학을 정립하는 막중한 책임을 조운제가 자임했던 것이다. 민족국가 만들기가 진행될 때 국문학을 정립하려고 했던 조운제에게 민족주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지였다. 한국에 민족국가 만들기의 일부라 할 그의 국문학연구에서 민족주의는 곧 민족의 지향과 연결되는데, 흔히 지적된 자주, 독립, 통일 등 민족적 정체성의 정립과 관련된 항목 외에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던 민족의 최종 지향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를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조운제 인생의 중년부터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이념이다. 물론 이 민주주의가 성소수자 등 각층의 다양한 정체성까지 세세히 고려하지는 못했지만, 약자, 소수자, 외국인은 포괄하고 배려하려 했다. 조운제의 민족에 있어서 자주, 독립, 통일이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현실 대응이라 한다면, 민주는 민족의 또 다른 내실이자 최종적 지향점이었다.

II. 도남 민족주의의 시대적 요구와 배경

조운제의 국문학이 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8) 위의 논문(황종연의 토론문), 65~68면.

9) 위의 논문, 59면.

조운제는 국문학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했다고 했고, 광복 후에는 비로소 떳떳하게 국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음에 크게 감격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학 분야의 손진태, 이인영과 함께 신민족주의를 제창하면서 국문학사를 민족사관에 의해 썼다고도 했다. 그는 국문학을 근대학문 또는 근대교육에 편입하게 함으로써 처음으로 국문학을 정립하고 국문학의 태두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국문학자들이 조운제에 대해 아는 바다. 그런데 조운제가 민족주의를 주장한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그의 민족주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갖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여기서 먼저 광복 이후 한반도에서 크게 부각된 민족주의가 어떤 성격을 가지며 그 속에서 조운제의 민족주의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살피기로 한다.

광복을 맞은 한국은 모든 것이 황폐했다. 조운제는 『한국문학사』에서 민족의 관점에서 재건을 말했으나 사실 종전의 조선 왕조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민족국가의 창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일제가 물러가고 통치의 빈자리를 미군이 채웠으나 군정 이후의 새 나라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광복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 만 3년이 걸렸으니 그 사이에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이들 국회의원이 헌법을 제정하며 또 그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가의 외형을 갖추어 갔다. 국가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국가가 온전히 건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정치는 물론 경제, 문화, 교육 등 제 부문에서 국가만들기가 진행되었다.

이 무렵 조운제는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았다. 광복 당시에는 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으니 바로 경성제국대학이었다. 일제는 고등교육 최고 기관의 운영을 자신들이 독점하였고 한국인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니 광복 직후 한국의 고등교육을 정비하는 일에 경성제국대학을 우선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경성제국대학은 간판에 ‘제국’ 두 글자를 가리고 급히 경성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어 개교했으나 대학 내에 미군이 주둔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었다.¹⁰⁾ 조운제는 이 경성대학에서 백낙준에 이어 두 번째 법문학부장을 맡았고 그 후속으로

10) 정병준, 『경성대학 총장 알프레드 크로프츠와 미군정 초기 대학정책』, 『사회와 역사』 132, 한국사회사학회, 2021, 66면 및 78면.

만들어질 국립서울대학교의 교수 인선을 주도했다.¹¹⁾ 쉽게 말하자면 조운제는 해방된 한국에서 민족국가 만들기 한창일 때 대학만들기의 주역 가운데 한 분이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조운제는 대체로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인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분 정도로 이해된다. 그런데 당시 서울대학교의 위상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유수의 대학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다. 미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학교였으며 한국의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학교였다. 광복 이후 종전의 전문학교들이 미군정에 대학으로의 승격을 청원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1946년 8월 15일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가 각각 연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로 간판을 바꾸어 걸 수 있게 되었지만, 이들 학교는 학생 총원은 물론 시설, 교수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들 주요 대학의 형편이 이 정도였으니 다른 대학들은 더 말할 덧붙일 것도 없다.¹²⁾

조운제 또한 이러한 실정을 거듭 지적했는데 1953년 한 신문에 쓴 글 「대학교육의 현상」에서는 당시 대학의 시설, 교수, 학생에 대해 서술하면서 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중 서울대학이 좀 낫다 하지만 서울대학 중에도 그 전신인 경성대학의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의 시설뿐이지, 해방 후 급조된 군소대학들은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다음 전통을 자랑하는 고려대학, 연세대학, 이화대학, 성균관대학, 동국대학이 있다 하지만 그리 대단한 것이 못 되며, 여타의 대학은 지방의 대구의대, 광주, 부산수대 등이 어떤지는 몰라도 거개가 아마 별 시설이 있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대학은 교사조차 변변한 것이 없어 남의 집 셋방살이 살림

11) 정병준, 위의 논문, 110~113면.

12) 서울대학교70년사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70년사』, 2016, 19면에서는 『서울대학교 20년사』 등을 참조하여 1948년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 총원을 7,098명 또는 7,146명으로 적고 있다. 강명숙, 『미군정기 사립대학 설립과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아시아교육연구』 4-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3, 167면에서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 고등교육 기관의 수가 42개이고 총 학생수가 24,000명이라 했다. 서울대학교 학생 수가 전체 대학생 수의 30%에 가까웠던 것이다. 이 밖에 『한국교육십년사』(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풍문사, 1960, 550면)에 실린 1953년 12월 31일 현재의 대학교 교직원 통계표에 따르면,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를 합한 교직원의 수가, 서울대학교가 370명인데, 연희대학교는 87명, 고려대학교는 112명, 이화여자대학교는 138명, 성균관대학교 37명, 홍익대학 19명 등이어서 교원을 통해서도 대략 학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을 하는 데도 더러 있지 않는지 모르겠다. 실로 한심한 일이다.”(『도남잡지』, 132면)라고 했다. 이런 사정은 꽤 오래 지속되었으니 1960년 발표한 『대학 교육의 자성』에서도 비슷한 말이 이어진다. “해방직후와 같이 대학설립의 허가장만 가지고 거리의 셋집으로 돌아다니는 대학은 물론 지금은 없겠지 마는 설립된 지 십여 년을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건물 하나 변변한 것이 없고 건물은 비록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내부시설은 웬만한 중학교만도 못한 대학이 아직 수두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도남잡지』, 140면).

이런 형편에서 미군정기에 문교부장을 지낸 오천석과 같은 교육자들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최고학부를 세우고 싶은 욕망”¹³⁾에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을 추진했다. 경성대학과 기타 사범대학, 여자사범대학, 법학전문학교, 경제전문학교, 공업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음악학교, 치과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광산전문학교를 병합하여 국립서울대학교를 만들었던 것이다.¹⁴⁾ 그러나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은 곧 격렬한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설립을 미국인이 주도했다는 것 외에, 합병될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했으며, 또 좌익 세력은 합병 과정에 내쫓길 것을 염려했다.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을 그저 한 대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고등교육 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했기에 전국 각지에서 중학생들까지 동맹 휴업을 했던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역사적 사건인 이른바 ‘국대안(국립대학교 설치안) 파동’이다.

조운제는 국문학을 교육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학교에서 1946년 개교 당시 실질적으로 거의 유일한 교수였다. 국어학 분야에는 일석 이희승, 심약 이승녕, 일사 방종현을 교수로 채용했으나, 국문학 분야는 조운제가 혼자였고 그가 곧 가람 이병기를 모셔 와서 두 분이 국립서울대학교의 국문학을 책임졌다. 『서울대학교 50년사(하)』의 전직 교수 명단을 보면, 시인 김기림과 소설가 허준이 조교수로, 양주동이 전임강사로 국문학 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오며, 또한 전공은 밝히지 않았으나 원래 일본문학 전공으로 광복 후에는 한국문학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진 서두수¹⁵⁾의 이름이 전공

13) 오천석, 『외로운 성주』, 광명출판사, 1975, 100면.

14) 『서울대학교 70년사』, 19면.

15) 박광현,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 —“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4, 한민족어문학회, 2009, 368면. 서두수는 경성제국대

을 밝히지 않고 보이지만,¹⁶⁾ 이분들의 근무는 한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자들의 수학담에서도 이분들 이야기는 잘 보이지 않으며, 나손 김동욱은 오히려 다른 분은 말하지 않고 시인 정지용이 <시경> 강의를 했음을 말했다.¹⁷⁾ 설사 이런 분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도 가람 이병기조차 근대적인 학문 방법론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하신 분이 아니니 대학에서 근대학문으로서 국문학의 체계를 세울 수 있는 분은 조운제가 유일했다. 실질적으로 지금의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교육을 아우른 의미의 국문학을 책임질 사람은 조운제뿐이었던 것이다.

당시 조운제가 국문학에서 차지하는 독보적 지위와 그에 따른 책임 의식은 그의 여러 글에 잘 나타나 있거니와, 조운제의 제자인 백영 정병욱은 해방 직후의 조운제에 대해 “일제가 남기고 간 경성제국대학을 접수하여 경성대학을 발족시킨 것은 1946년 2월이었다. 때에 국문학자인 조운제 선생은 법문학부장에 취임하여 국내의 유일한 대학인 경성대학을 대학다운 대학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하늘을 찌를 듯한 의욕으로 나날을 보내었다.”¹⁸⁾ 고 썼다. 남들이 다 아는 이런 위치를 본인이 모를 수 없으니 그 책임의 막중함은 지금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한국이 새로 국가를 만들어 가던 시기에 조운제는 거의 홀로 국문학 만들기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간행한 조운제의 『국어교육의 당면한 문제』(1947), 『조선시가의 연구』(1948), 『국문학사』(1949) 그리고 『국문학개설』(1955)이 그 한 결과물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조운제의 노력을 ‘종족적 민족주의’로 폄하하는 것이 적절할까. 조운제가 국문학을 만들어가던 시기에 동일한 궤도에서 ‘민족국가 만들기’를 수행한 사람들의 작업을 보면 그들의 민족주의에 ‘종족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바로 미군정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들이 새로 민족국가 만들기에 나섰을 때, 그들의 과업을 지금의 눈으로 보면 얼마간 부족함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만들

학에서 일본문학(국문학)을 전공한 분으로 광복 후에는 연희전문과 서울대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쳤다고 한다.

16) 서울대학교 50년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50년사(하)』, 1996, 852~853면.

17) 김동욱, 『고전문학』, 『국어국문학회 삼십년사』, 일조각, 1983.

18) 정병욱, 『국문학』, 『서울대학교 30년사』, 1976, 545면.

기의 업적은 쉽게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만들기의 기초가 되는 헌법만 봐도 알 수 있다.

제헌헌법은 불과 20일이라는 짧은 논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지만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그 속에서 여성이나 노동자는 물론 외국인까지 법적 주체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¹⁹⁾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헌의원들의 노력을 황중연의 비판처럼 “다른 정체성-젠더적, 계급적, 지역적 정체성들-을 통합하거나 복속시키면서 향존하는 어떤 것”이나 “국민총화의 헤게모니를 반복”하자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황중연의 지향점이 국가만들기를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기획이 아니라면, 국가, 당시로서는 민족국가 만들기는 피할 수 없는 과업이었다.

이 무렵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하여 본격적인 이론적 저술을 간행한 사회학자 최문환은 『민족주의의 전개과정』(1959)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족주의는 근세 이래로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하여, 기후(其後) 근대사를 추진시킨 유력한 동력으로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어서 세계최대의 힘으로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는 현재 세계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지한 사색과 파악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만 세계사적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국토의 절단 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학도의 지고한 사유과제라고 하겠다.²⁰⁾

최문환에 따르면 당시 후진국가인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족국가 만들기였고, 한국을 포함한 동양사회는 민족국가를 만들어 갈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이 미발달한 상태이므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불가능하며 부득이 지식계급층에 의한 ‘옆에서의 혁명’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진국의 지식계급층은 올바른 민주화의 제조건을 밝히고 실천할 방안을 강구하여 사상 유례없는 이 지대지고한 문제에 해답하여야 할 중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²¹⁾라고 결론을 맺었다. 시민 계급이 발달하지 않은

19) 박혁, 『헌법의 순간: 대한민국을 설계한 20일의 역사』, 페이퍼로드, 2024, 65~66면에 제헌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에게만 권리를 보장하고 이방인에게는 어떤 권리도 허용하지 않는 근대 국민국가와는 다른 나라이기를 바”랐다고 했다.

20) 효강 최문환선생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최문환 전집(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76, 175면.

한국과 같은 후진 동양사회에서는 지식계급이 선도하여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민족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좌우익을 막론하고 누구라 할 것 없이 민족국가 만들기에 나설 때 조운제는 민족문화의 일부인 국문학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새로 만들어진 민족국가 대한민국의 국문학의 연구와 교육이 필요한 만큼 누군가는 국문학을 만들어야 했다. 민족국가 만들기를 초국가적 시각에서 부정하지 않는다면 설불리 그 한계를 지적하기보다는 민족국가 만들기의 기획이 소수자, 약자, 피지배자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문학 만들기가 피할 수 없는 과업이라면 그 실질이 어떠한지 살핀 다음 비판할 일이다.

제헌헌법이나 조운제의 국문학이 보여주는 민족주의는 민족을 억압의 기제로 이용했던 나치의 게르만 민족주의와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다. 나치의 민족주의는 유대인, 동성애자, 장애인을 절멸시키거나 배제하는 종족적 민족주의지만,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민족주의는 약자, 소수자를 포섭하고 배려하려는 민족주의였다. 조운제의 민족주의가 자료의 한계나 당대의 의식 수준의 문제 등으로 동성애자 등의 소수자까지 미처 논하지 못한 점이 있을지언정, 그의 민족주의에서 여성, 민중 등 약자 또는 피지배자를 부정하고 폄하하고 배제하려는 의식은 찾기 어렵다. 조운제의 민족주의를 비판하려면 그에게 민족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으로 민족을 구성하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만 한다. 다음 장에서는 조운제 민족주의의 한 실질로서 민주주의를 중심에 놓고 살피기로 한다.

III. 민족의 한 지향으로서의 민주주의

조운제는 주저인 『한국문학사』를 민족사관에 따라 썼다고 하면서 민족문학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문학사를 마치 하나 생명체의 생애처럼 태동시대/형성시대/위축시대/잠동시대/소생시대/육성시대/발전시대/반성시대/

21) 위의 책, 499면 및 정일준, 『최문환과 한국 사회학의 문제들: 민족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 『한국사회학』 51-1, 한국사회학회, 2017, 414~417면.

운동시대/유신시대/재건시대로 나누어 정리했다. 그리고 민족문학의 특징을 마치 한 인간의 성격처럼 ‘은근’과 ‘끈기’로 들었다. 문학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역사성을 간과한 채 관념적 특징을 찾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을 넘어서서 민족과 민족문학을 생명체로 여겼다면 그 생명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이 조운제가 생각한 민족의 실질일 것이다.

『한국문학사』 맨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앞에서 인용한 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운제는 외세에 침탈을 당하여 분단에까지 이른 민족의 현실에 대한 고민이 컸다. 그에게 자주, 독립, 통일은 민족이 풀어야 할 당면 과제였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그의 장노년 시기로 갈수록 더욱 중요해진 민주주의다. 자주, 독립, 통일이 일시적인 역사적 과제라면 민주주의는 민족의 영원한 과제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었다. 조운제의 민족, 민족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살피기로 한다.

조운제의 민족주의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1960년 4월 25일의 이른바 교수단시위다.²²⁾ 이로부터 일주일 전인 4월 19일 시위에서 서울에서만 백 명이 넘는 희생자가 있었으니,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서울 지역의 교수들이 일어난 것이 이날의 시위다. 이승만 독재와 부정선거로 촉발된 시위는 학생과 시민의 희생을 낳았고, 이에 맞서 이승만이 4월 19일 선포한 계엄령으로 인해 더욱 엄중한 정국에서 교수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회관에서 모여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날 교수들의 시위란 목숨을 건 각오가 아니면 안 될 일이었으니,²³⁾ 은밀히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이 자기를 떳떳이 드러

22) 조운제의 삶은 주로 각각 1964년과 1976년에 간행된 그의 회갑기념논문집과 고회기념논총에 실린 자편의 연보를 참조했다. 조운제, 『(자편) 도남연보』, 『도남 조운제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신아사, 1964. 조운제, 『(자편) 도남연보』, 『도남 조운제박사 고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76. 김명호, 위의 논문, 33~43면에도 조운제의 삶이 잘 정리되어 있다.

23) 조운제, 『4.19의 증언』, 『도남잡지』, 330~338면. 이때 함께 시위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상대 변형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당시 교수들이 시위행렬에 참가하는 것은 몹시 비장한 일이었다. 바로 며칠 전 경찰 발포로 인하여 수백 명이 사살당한 일도 있어, 시위에 나선 어떤 교수의 경우에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목욕제계하고 새 옷을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²⁴⁾ 이 시위에서 비로소 ‘이승만 하야’의 구호가 나왔고 그 여파로 다음날 이승만이 물러났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린 4월혁명의 중심에 조운제가 있었으니, 조운제는 9인의 교수 선언문 기초위원 가운데 일인일 뿐만 아니라, 시위의 맨 앞에서 들고 나선 현수막에 적은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구절도 그의 입에서 나왔다.²⁵⁾ 4월혁명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생이었던 김광이 쓴 회고록에 따르면, 조운제의 삼남으로 당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재학 중이던 조복래가 부친의 뜻을 자기에게 전해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조직하여 교수들을 호위했다고 한다. 조운제가 4월 25일 교수시위에 중심 역할을 했음은 여러 경로로 분명히 알 수 있다.²⁶⁾

당시로서는 노년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조운제는 도대체 어떤 계기로 그렇게 분격하여 목숨을 불사하고 시위를 주도하였을까? 그의 말처럼 학생들의 희생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일까, 반독재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조운제의 삶에서 사회운동에 참여한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널리 알려진 바로는 이미 1948년 4월 남북협상 때 김구, 조소앙 등을 따라 북한을 다녀온 것이 시초가 된다. 미국과 이승만 등 우익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와 단독정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통일정부를 지향하는 지도자를 따라 북한을 다녀왔으니 이후 조운제는 이승만 정권에서 눈 밖에 있었다. 이 일 등으로 인하여 이듬해인 1949년 12월 경무대 경찰서에 검거되었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극심한 좌우익 대립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이 하찮게 취급되던 시절에 지금 청와대 경호처라 할 수 있는 경무대 경찰서에 검거되었으니 실로 위태로운 일이었다.

조운제가 남북협상 때 방북한 것을 대표단의 조소앙이 일가라서 따라간

갈아입고 나왔다고 한다.” 변형운, 『학현일지: 변형운회고록』, 현대경영사, 2019, 102면.

24) 김광, 『서울대와 4.19혁명』, 『대학신문』(서울대학교, 2020.4.19).

25) 현수막은 조운제의 말을 임창순이 받아서 썼다고 한다. 『동아일보』 1963년 4월 25일자 변희용, 권오돈, 정석해, 이희승 대담. 같은 내용이 이이화 대담, 『임창순-4.25 교수데모에 앞장선 한학·금석학의 대가』, 『역사비평』 20, 역사비평사, 1992, 192면에도 보인다.

26) 1946년에 결성된 민족건양회 활동의 일부로 조운제가 교수시위를 조직하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장동표, 『8·15 이후 이종률의 민족건양회 활동과 민족혁명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356면.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지만²⁷⁾ 그는 이미 그 이전부터 사회운동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 1946년 1월 5일 박진과 이종률 등이 주도하여 만든 민족건양회의 주요 일원이 되어 참여한 것이다. 조운제가 민족건양회의 일원인 것은 본인 스스로 밝힌 바도 없고 종전 조운제에 대한 연구에서도 거론된 적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관련 기록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조직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적이 어느 정도 해명이 된다. 1948년의 방북이라든가 1960년 이후 조직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이른바 민자통 참가 등이 순조롭게 이해되는 것이다.

민족건양회의 조직은 수석의장에 김창숙, 의장에 이시영, 부의장에 안경근, 총책임간사에 박진, 사학연구부 책임간사에 조운제, 정치실천부 총무간사에 문한영 등으로 구성하였다.²⁸⁾ 민족건양회 정치이론의 토대를 제시한 정치학자 이종률은 민족건양사론(民族建揚史論)을 주장했는데, 불세비즘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사회주의도 아닌 것으로, 반매관, 반외세, 반봉건의 “민족화(民族化)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다. 민족건양회가 비공개 조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가 이 조직의 일원임을 밝히지 않았을 수 있고, 특히 4월혁명 이후 결성된 민자통이 결국 5.16쿠데타 이후 정권의 철퇴를 맞아 관련자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옥고를 치렀기에 더욱 비밀에 붙였던 것 아닌가 한다.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²⁹⁾

4월혁명 이전에도 조운제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의견 또는 활동을 찾아볼 수 있으니, 1946년 11월 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는 민주교육연구회의 강습회에서 국문학을 강의한 것이 나오고, 『중앙신문』 1947년 10월 24일

27) 김명호, 앞의 논문, 34면. 김명호는 이승녕의 『회고기』 등을 참고하여 조소앙의 수행원으로 따라간 것으로 보았다.

28) 장동표, 앞의 논문, 345면.

29) 조운제가 민족건양회 회원으로 해방 공간부터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왔음은 부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였던 이종률의 책에서 자세히 그려져 있다. 이종률, 『민족혁명론』, 들샘, 1988, 227~240면 및 276~280면. 조운제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하여 이종률의 기록들은 앞으로 상세한 검토를 요한다. 특히 1960년 4월혁명 당시 교수시위단의 조직도 민족건양회 쪽에서 조운제와 임창순으로 하여금 주도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다른 데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황직, 『군자들의 행진』, 아카넷, 2017, 475면 및 496면 등에서 이종률의 민족건양회 조직 및 그것이 4월혁명에 끼친 영향 등을 다소 과장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좀 더 비판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광복 직후 결성된 민족건양회의 사상을 보여주는 책으로 인기학소론(人紀學素論)이 있는데 우선 이에 대한 심층적 검토부터 필요하다. 진상원, 「1946년 인기학소론의 출간과 그 의의」, 『역사학보』 240, 역사학회, 2018 참조.

「상아탑에서 보내는 말」이라는 컬럼에서는 “학문은 민주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학풍이 건전치 못하면 건전한 국가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건전한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본 것이다.

특히 1947년 간행한 저서 『국어교육의 당면한 문제』에서는 민족교육과 민주주의교육의 관계를 자세히 언급하는데, 제1편 “국어와 인접학과의 관계”의 제1장 “국어와 교육”에서 국어교육은 민족교육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좌우익이 모두 ‘진보민주주의교육(공산주의)’ 또는 ‘민주주의교육’을 강조하는 이때 민주주의가 대단히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조선적’ 민주주의교육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족교육이라 하니까 혹자는 곧 독일의 나치스교육이나 일본의 국수주의교육과 같이 오해할 이 있을지 모르나 나는 그러한 편협한 의미에 쓴 말이 아니다.”고 밝혔다.³⁰⁾ 그는 한국의 교육이 민족교육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 민족교육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정체성을 억압하는 민족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 교육이 되어야 하여 민족적 민주주의 교육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민족건양회의 ‘민족화 민주주의’와 상통하는 견해면서 동시에 조운제가 노년까지 견지한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이기도 하다.

조운제가 신생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중요한 이념이자 체제로 인식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때 좌우익,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두 민주주의를 높은 가치로 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해방 공간 남한의 민족국가 만들기에서도 중심적 가치였으니, 미군정기 문교부장이던 오천석은 “해방 직후 우리 지도자들에게 부과되었던 과업은 독립국가로서의 조국의 재건과 민주사회로서의 국가 발전이었다”고 하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수립 후 초대 문교장관인 안호상 역시 ‘민주적 민족교육’의 표어를 걸었다.³¹⁾ 민족국가를 만들어가던 시절에 모두가 민족의 실질로서 민주주의를 언급했던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조운제의 생각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구체화했는데, 1953년 2월 신문에 쓴 「대학교육의 현상」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교육에 있어서는 하나의 영웅을 만드는 것보다는 국민의 고른 교육의 수준을

30) 조운제, 『국어교육의 당면한 문제』, 문화당, 1947, 13면.

31) 오천석, 앞의 책, 98면 및 108~109면.

올리는 것이 그 원리"라 하면서도 다만 속히 지도자를 양성해야 하는 형편이 있으니 우선 대학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 1957년에 쓴 『지위의 민주화』에서는 주로 선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과거에는 특수 계급에만 주어졌던 특정한 지위가 지금은 선거에 입후보하여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도남잡지』, 245면). 민주주의의 본령으로 선거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1958년에는 『사고방식』이라는 글에서 “민주 건설의 민족적인 대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총선거나 대통령 직선 등의 제도 이상으로 ‘나도 타는 버스면 남도 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도남잡지』, 280면). 특권계급이 없이 시민 누구나 평등한 것이 민주주의의 바탕이라는 말이다.

조운제가 4월혁명에 적극 가담한 것은 결코 돌발적인 일이 아니며 광복 직후부터 계속 쌓여온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실천으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운제는 1960년의 4월혁명을 “4.19민주혁명”으로 규정하면서(『도남잡지』, 336면), 『혁명은 진전되고 있는가: 4월 이후의 회고와 전망』에서 “4월의 혁명은 이 나라에 독재의 뿌리를 빼고 민주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데에 그 근본정신이 있는 것(『도남잡지』, 342면)”이라고 했다. 4월혁명 후 그는 사회 참여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한국교수협회를 결성하여 회장을 맡았고, 4.25선언에 이어 시국선언 제2호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6.25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운동 조직인 민자통에서 통일방안심의위원회 의장이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일어난 5.16쿠데타로 박정희가 집권하자 중립화 통일 등을 주장하며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혐의로 검거되어 검찰로부터 5년 구형을 받았다. 결국 혁명재판소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그 사이 8개월 서대문형무소에서 감혀 있었다. 이 일로 인해 성균관대학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수년의 실직 끝에 1965년 3월 다시 대구 청구대학에 부임하였으나 곧 4월혁명 이후 가장 큰 시위를 불러왔던 한일협정 반대시위에 가담하면서 평온한 삶이 깨지고 말았다. 협정을 반대하는 재경교수단 의장단의 대표의장으로 추대된 다음날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고, 또 학계대표로 시위를 주도하며 각 지역의 연대조직인 조국수호국민협의회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가 정부로부터 정치교수³²⁾라는 낙인을 받고 학교에서 추방되고 말았다. 그

러다 1967년에 청구대학에 복직되었으며, 청구대학과 대구대학이 통합하여 영남대학교가 되자 자동으로 영남대학교 교수가 되었다가 1974년 2월 정년 퇴직을 하였고 1976년 4월 10일 돌아가셨다.

1964년 환갑년을 맞아 그간 학술논문 외의 여러 글들을 모아 『도남잡지』를 간행한 후 별다른 저술 활동이 많지 않았으니, 고희논총의 연보에 ‘논문’으로 분류한 글 중에는 환갑 이후의 것은 세 편밖에 없다. 그런데 그중 두 편이 민주주의를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었으니, 노년으로 갈수록 그의 생각이 민주주의에 기울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966년 1월호 『사상계』에 발표된 「역사관(歷史觀)에 서야 할 민족문화: 그 정화(淨化)와 자립을 위한 반성」에서는 ‘과잉한 문화도입’ 향에서 민주주의 수입의 문제를 말하면서, “과거에 우리들의 유림들이 서원 향사에 그 집례자를 뽑을 때나 혹은 동족들이 모여 종회를 할 때의 그 회의진행방식은 완전한 하나의 민주주의 방식”이라면서 이처럼 한국도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가지고 있었으니 그 ‘원초적인 민주주의’를 서양의 민주주의와 잘 조화하여 한국에 맞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나라의 國本이요, 자유세계의 정치대도(政治大道)인 민주주의를 세워 “민족문화를 참말로 근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³²⁾

또한 1967년 발표한 「근대화에 따르는 정신상의 제문제」에서는 여러 문제를 ‘새로운 인생관의 확립’, ‘조국애와 주체의식의 확립’, ‘민주주의 정신의 배양’, ‘봉건주의적 관념의 배격’, ‘풍수지리설과 미신의 타파’, ‘의례의 현대화’의 여섯 가지로 나누면서, 민족주의와 관련된 두 번째 항목에서 애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또 과거의 이승만 대통령도 자타가 공인하는 애국 애족자다. 이렇게 말하면 독일의 히틀러도 독일의 애국 애족자일 배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다 진실로 애국 애족자라 하여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어 민주주의를 한국이 추구해야 할 실질로 보면서, “근대의 모든 문명은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 위에서 성장 발달하여 왔는 만큼, 우

32) 이때 정치교수는 정부에서 반정부적 교수에 대해 붙인 말이다. 1965년 9월 9일자 『조선일보』에 양주동, 조지훈 등과 함께 정치교수로 지목된 데 대해 조운계가 의견을 밝힌 기사가 있다.

33) 조운계, 「역사관(歷史觀)에 서야 할 민족문화: 그 정화(淨化)와 자립을 위한 반성」, 『사상계』 155, 사상계사, 1966년 1월호, 128~129면.

리의 근대화도 역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³⁴⁾

국문학자로서 조운제처럼 굴곡진 삶을 산 사람을 찾기 어렵다. 드러난 것만으로도 무려 4번이나 수사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거나 수감되었고 세 군데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해임되었다. 그의 정치활동을 보면 진보적 정치의식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진보적 학자들이 월북한 것과 달리 오히려 그는 북한 공산당에 의해 반동분자로 지목되었다. 1948년 북한을 다녀와서는 서울대학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교한 김일성종합대학³⁵⁾을 교수회의 석상 또는 강의실에서 찬양했다고 하여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³⁶⁾ 그렇다고 그의 정치성향을 친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오히려 실재 그 반대였다. 이승녕의 『회고기』를 보면 6.25전쟁 때 인민군 치하가 되었을 때 “제1차로 대학책임자가 제거(除去)한 교수 이름 중에 조운제 씨도 들어 있다. 이같이 처음부터 대학에서 제거한 자는 공산당이 가장 악질적인 반동분자로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³⁷⁾ 김일성대학을 ‘찬양’하면서도 인민군에 의해 제거 1순위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서 민족의 유불리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뒤의 일 이긴 하지만 1966년에는 우파혁신정당 창당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³⁸⁾

이처럼 조운제의 삶에서 민주주의는 광복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34) 조운제, 『근대화에 따르는 정신상의 제문제』, 석천 오종식선생 외갑기념문집편찬회 편, 『사상과 사회: 석천 오종식선생 회갑기념 문집』, 춘추사, 1967, 121~122면. 조운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1950년 이후 일간 신문에서도 간간히 확인된다. 1955년 5월 21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정태시 편저의 『현대오변강화』에 대해 간략히 서평을 하면서, “독제주의가 침묵의 정치라 한다면 민주주의는 담론의 정치라 할 것이다”라는 말로 글을 열어간 바 있고, 『조선일보』 1960년 5월 1일자에서는 교수들이 말하는 학원민주화 방안에 대해 대학신문의 자율성 확보를 주장했으며, 1971년 9월 21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사립대 자주화 움직임에 대해 대학의 자주는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35) 김기석, 『일관성 쌍생아의 탄생, 1946: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 교육과학사, 2001, 61면.

36) 이병기, 『일기5』,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231면, 1949년 12월 15일조 및 이승녕, 『회고기』, 『서울대학교총동창회보』 3호, 1976.8.24. 11면. 『동아일보』 1949년 12월 12일 기사에는 조운제가 강의실에서 북한 대학을 찬양했다는 설을 적고 있으며, 『경향신문』 1950년 1월 11일 기사에는 경무대 경찰서에서 불구속 송청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강의시간에 남북협상을 찬동하는 말을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37) 이승녕, 위의 글.

38) 『경향신문』 1966.2.17.

가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국문학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찾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그렇게 강조하던 민족도 문학사 저술에서 민족사관에 따른 시대구분 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문학연구는 텍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 텍스트에 민족이나 민주라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낼 수 없다. 조운제는 1952년 『신생공론』에 발표한 「나와 국문학과 학위」에서 자신의 국문학 연구 동기를 “민족정신의 고취와 민족독립운동의 일환”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나는 여기에 솔직히 고백하면 그러한 의식을 별로 갖지 못하였다. 민족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문학을 연구하였다는 것은 한 관념이었고, 실제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 저것 다 잊어버리고 국문학을 위한 학문연구에 열중하여 나왔다.”(『도남잡지』, 378면)고 했다. 살아도 민족이요, 죽어도 민족이라고 한 그 민족마저도 이런 형편이니 민주를 문학연구에 투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국문학 관련 저작 여기저기에 민주적 시각을 약간이나마 살필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인 1929년 3월에 발표된 대학졸업논문 「조선소설의 연구」에서부터 민주주의는 아니라도 민주적 민중적 시각을 찾아볼 수 있으니, 제2장에서 소설 유형을 11가지로 나누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사회제도에 대한 반항적 소설’을 꼽고, 여기에 속한 <홍길동전>은 천한 서자가 귀한 왕(율도국)의 자리에 오른 소설이라고 했고, <제마무전>은 관료의 부패를 통렬히 공격한 작품으로, 그리고 <춘향전>은 계급결혼에 대한 반항사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았다. 또 <전우치전>에서는 주인공이 무산대중에게 천하의 보물을 나누어주며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일종의 공산주의적 반항사상을 폭로한 것으로 보았다.³⁹⁾

그리고 학위논문의 마지막 장인 제6장 “독자계급과 그에 미친 영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소설이 “평민계급의 특권계급 타파운동”인 동학을 불러온 근본이 되는 힘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설의 사회사적 의의를 주장했다.

당시 민중의 의기(意氣)라는 것은 동학이란 이름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다른 이름에 의해서도 일어날 만한 충분한 힘이 그들의 가슴 속에 차 있었던 것이다.

39) 조운제, 「조선소설의 연구」, 『도남학보』 6, 도남학회, 1983, 96면.

결코 이같은 대운동이 일시적 변동에 의해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의기는 이미 먼 옛날 임진역 이후부터 쌓여 온 것이었다. 다시 머리를 돌려 조선소설에서의 사상방면을 보며는 참으로 기괴한 것이다. 그들은 이런 사상을 가슴에 담아오는 동안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의기가 형성된 것이나 그것이 동학이라는 이름에 의해 한쪽이 터지기 시작하자, 단번에 폭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는 대담하게도 조선소설이 이선말(李鮮末)의 사회적 변동을 가져온 동학란을 불러 일으키는데 근본이 되는 힘을 지녔었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아직 어느 한 사람의 입에도 오르내린 바가 없는 만치 너무 대담한 설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진실되게 조선소설을 연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에 일찍이 조선소설을 진실히 연구한 사람이 있었다면, 훨씬 이전에 이런 것이 운위되었을런지도 모른다.⁴⁰⁾

반계급적, 민중적 평등사상에 의한 작품해석은 민주주의적 시각과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 이런 해석은 그의 국문학사 종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문학사』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조선 사회의 대표적 소수자인 서자 문제를 다룬 <홍길동전>을 “모순된 사회현실을 타파하려는 사회소설이요, 또 혁명소설”이라고 고평했고, 하층 여성인 기생을 다룬 <춘향전>은 “완성된 예술품이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허위를 배척하고 진실을 요구하였으며, 사회적으로 모순을 지적하여 그 개혁을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극찬했으며, 또한 신소설을 소개하면서는 <자유종> <설중매> <운세계> 등 정치소설로 불리는 작품을 거론하면서 자주독립사상 외에 “인민평등, 남녀평등의 민주 사상을 부르짖고” 있다고 했다.⁴¹⁾

조윤제가 표방한 민족의 내실에는 민주주의 외에도 자주, 독립, 통일 등이 공존한다. 그런데 민주주의 외의 요소들은 분단 상황이라는 일시적 현상에 대한 대안이라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궁극적 가치로 존재하니 민족

40) 조윤제, 『조선소설의 연구』, 『도남학보』 8, 1985, 120면.

41) <홍길동전>, <춘향전>, 신소설은 각각 조윤제, 『한국문학사』, 248면, 315면, 420면에서 인용했다. 1949년 간 『국문학사』(동국문화사, 1949, 3판 1954) 249면과 324면에 각각 <홍길동전>과 <춘향전>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평가가 있으니, 이는 1963년 개정판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신소설에 대해서는 1949년 간 『국문학사』에서는 위의 설명이 없으니 1963년 개정하면서 추가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신소설의 정치성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최신 논의는 정병설, 『신소설의 정치성 재고(再考) - <혈의 누>와 <운세계>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83-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6 참조.

의 궁극적 지향점으로는 민주주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민족에 민주주의가 내재하는 한 그의 민족주의를 억압적 종족적 민족주의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독재 체제에서 민족을 국민 총화에 사용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조운제의 삶과 학문에서 민족을 그런 방향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강조가 다른 정체성의 발언과 참여를 막을 수는 있으니 그 부분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한 요소를 강조할 때 다른 요소들이 위축될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이 역사성이다. 해방 공간은 물론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은 지금처럼 소수자를 하나하나 배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모두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절대빈곤의 상태였고, 이어진 전쟁에서는 민간인만도 학살 등 이런저런 이유로 백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상황이었다. 침몰하려는 배에서 급선무는 배를 침몰에서 막는 것이다. 그때 이런저런 사람의 목숨을 돌보지 못했다고 현재의 관점에서 침몰을 막으려고 노력한 사람을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운제가 말한 민족의 실질로서의 민주주의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민주주의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학자인 버드나 크릭은 민주주의를 두고 공공의 영역에서 가장 문란한 단어일지도 모른다고 했다.⁴²⁾ 그만큼 민주주의의 개념 범위가 넓다. 단적으로 독재 정권인 북한마저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를 정도다. 조운제가 남긴, 앞에서 인용한, 민주주의의 편린을 연결하여 보면, 그는 고대 아테네 식의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선거를 통한 현대식의 대의 민주주의를 생각했던 듯하며,⁴³⁾ 이와 함께 그 바탕으로서 인간의 무차별적인 평등을 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당장은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로 끌어가야 한다고 여긴 듯하다. 최문환의 지식계급층에 의한 ‘옆에서의 혁명’을 통한 민주주의와 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는 당시 한국 진보적 민주주의자의 일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다.

42) 버나드 크릭, 이관후 옮김, 『정치를 옹호함』, 후마니타스, 2021(원저는 1962년 간행), 93면.
43) 정병설, 『시린 없는 민주주의: 시민주권을 위한 목소리』, 문학동네, 2025, 99~103쪽.

IV. 결론

작년 2025년은 서울대학교의 주요 단과대학이 관악산 아래의 캠퍼스로 이전한 지 50년이 되는 해다. 새 캠퍼스로 이전하며 종전의 문리과대학이 인문대학, 자연대학, 사회과학대학으로 분리되었으니, 작년은 국어국문학과가 있는 인문대학이 창설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인문대학에서 각 학문별로 연구사를 정리하는 기획을 했고 ‘국문학’ 분야를 필자가 맡았다. 본고에서 행한 조운제에 대한 일종의 연구사 검토가 그가 돌아가신 해인 1976년까지 해당되니, 1975년 이후의 연구를 더하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국문학 연구 전시기의 연구사를 통시적으로 살핀 것이 되었다.

조운제는 신생 대한민국의 대학에 국문학이라는 학문분야를 창설하고 정착시켰으니 이후 국문학은 주로 민족주의에 기초를 두었다. 해방 공간과 그 이후 1960년대까지는 사회적으로도 좌우를 가릴 것 없이 민족국가와 민족문화의 건설이 최우선 과제였다. 민족문학, 민족문화, 민족문학사는 민족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치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학문의 대상이었다. 그러다 민족이 회의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세계화의 물결이 흘러오자 국문학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족문화를 정리해야 한다는 시급성은 사라지고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과시하는 것은 적당치 않은 일이 되었다. 민족을 강조하는 것을 공동체의 다른 소수자들 발언권을 빼앗는 일로 여기게 되었으니 국문학은 지역문학 가운데 하나인 한국문학이 되고 말았다.

지금 21세기는 다문화시대, 글로벌시대의 탈민족시대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영역을 넘보는 탈인간(포스트휴먼)시대이다. 국문학의 목적과 목표, 역할과 지향을 근본적으로 되물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국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 그 출발점이 될 것이 조운제다. 국문학 첫 시기의 고민을 다시 물으며 현재의 우리를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탈민족시대에도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이 인접 중국이나 일본에 통합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당연히 미국이나 러시아의 일부가 될 것으로도 여기지 않는다. 한국은 상당 기간 한국으로 존

재할 것이며 한국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삼은 한국문화를 가진 국가로 존재할 것이다. 한국문화는 한국인을 위한 결속하는 문화이면서 동시에 세계인을 위한 문화가 될 수 있다. 조운제가 꿈꾸었던 민족처럼 민족의 다른 구성원을 억압하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약자, 소수자를 포용하는 포용적 민족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민주적 민족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자리잡은 대한민국이 그 문화적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 한반도 밖의 문화를 적극 포용하여 세계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조윤제, 『국어교육의 당면한 문제』, 문화당, 1947(도남조윤제전집5, 태학사, 1988 영인 수록).
- _____, 『조선시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 _____,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54(제3판, 초판은 1949).
- _____,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6(초판은 동국문화사, 1963).
- _____, 『도남잡지』, 을유문화사, 1964.
- _____, 『도남 조윤제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신아사, 1964.
- _____, 『도남 조윤제박사 고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76.
- _____, 『조선소설의 연구』, 『도남학보』 6, 도남학회, 1983.
- _____, 『조선소설의 연구』, 『도남학보』 8, 도남학회, 1985.
- _____, 『근대화에 따르는 정신상의 제문제』, 석천 오종식선생 외갑기념문집편찬회 편, 『사상과 사회: 석천 오종식선생 회갑기념 문집』, 춘추사, 1967.
- _____, 『역사관(歷史觀)에 서야 할 민족문화: 그 정화(淨化)와 자립을 위한 반성』, 『사상계』 155, 사상계사, 1966년 1월호.

김광, 『서울대와 4.19혁명』, 『대학신문』, 2020.4.19.

김동욱, 『국학자열전(1-4): 도남 조윤제 선생』, 『나손서실통신』(1977년 12월 20일에 서 1978년 3월 31일까지 4회; 한국문학비건립동호회 편, 민속원, 1991에 영인 수록).

이병기, 『일기5』,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승녕, 『회고기』, 『서울대학교동창회보』 1~4호, 1976.

정병욱, 『국문학』, 『서울대학교 30년사』, 1976.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편, 『한국교육십년사』, 풍문사, 1960.

2. 단행본

김기석, 『일란성 쌍생아의 탄생, 1946: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서종합대학의 창설』, 교육과학사, 2001.

김동욱, 『국문학개설』, 민중서관, 1992(재판).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1』, 일지사, 1984.

박혁, 『헌법의 순간: 대한민국을 설계한 20일의 역사』, 페이퍼로드, 2024.

변형운, 『학현일지: 변형운회고록』, 현대경영사, 2019.
 안도경 외, 『1948년 헌법을 만든다: 제헌국회 20일의 현장』, 도서출판포럼, 2023.
 오천석, 『외로운 성주』, 광명출판사, 1975.
 이종률, 『민족혁명론』, 들샘, 1988.
 이황직, 『군자들의 행진』, 아카넷, 2017.
 정병설, 『시민 없는 민주주의: 시민주권을 위한 목소리』, 문학동네, 2025.
 최진원,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증보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8.
 효강 최문환선생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최문환 전집(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76.

3. 논문

강명숙, 『미군정기 사립대학 설립과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아시아교육연구』 4-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3, 155~179면.
 김동욱, 『국문학연구사』, 『인문과학』 26,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2, 11~35면.
 김명호, 『도남의 생애와 학문: 민족에 살고 민족에 죽다(生於民族 死於民族)』,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황종연 토론문 부록), 23~68면.
 김일환, 『한국 사립대학체제의 형성과 재단법인의 정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1~374면.
 김종철, 『도남 국문학의 성격』,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이강옥 토론문 부록), 69~117면.
 류준필, 『형성기 국문학연구의 전개양상과 특성-조운제, 김태준, 이병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박광현,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 -“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4, 한민족어문학회, 2009, 341~372면.
 윤성근, 『조운제의 민족사관과 그 한계』, 『어문학』 36, 한국어문학회, 1977, 135~162면.
 이우성, 『도남 국문학에 있어서의 민족사관의 전개』, 『성대문학』 10, 성균관대학교 성균어문학회, 1964, 24~30면.
 이이화 대담, 『임창순-4.25 교수테모에 앞장선 한학·금석학의 대가』, 『역사비평』 20, 역사비평사, 1992, 182~203면.
 장동표, 『8·15 이후 이종률의 민족건양회 활동과 민족혁명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335~366면.
 정병설, 『신소설의 정치성 재고(再考) - <혈의 누>와 <은세계>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83-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6, 343~375면.

- 정병준, 『경성대학 총장 알프레드 크로프츠와 미군정 초기 대학정책』, 『사회와 역사』 132, 한국사회사학회, 2021, 65~127면.
- 정일준, 『최문환과 한국 사회학의 문제들: 민족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 『한국사회학』 51-1, 한국사회학회, 2017, 399~435면.
- 조동일, 『조운제의 민족사관과 문학의 유기적 전체성』, 『도남 조운제박사 고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76, 1~20면.
- _____, 『도남학의 전통과 국문학연구의 방향설정』, 『도남학보』 3, 도남학회, 1980, 88~93면.
- 진상원, 『1946년 인기학소론의 출간과 그 의의』, 『역사학보』 240, 역사학회, 2018, 445~475면.
- 최진원, 『도남 국문학의 개관』, 『성대문학』 10, 성균관대학교 성균어문학회, 1964, 46~52면.

Democracy Inherent in Donam Cho Yun-je's Nationalism

Jung, Byung-sul

Donam Cho Yun-je, as a member of the inaugural class of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at Keijo Imperial University, was a pioneer who initiated the systematic research and instruction of Korean literature within the modern institutional framework. Scholarly inquiry into Cho's life and literary achievements commenced in the 1960s with works by Yi Wu-seong, Choi Jin-won, and Kim Dong-uk. Since that period, a multitude of studies have consistently identified positivism and nationalism as the defining paradigms of his academic trajectory,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nationalism in the latter half of his life.

Cho's nationalism, however, has not been exempt from critical scrutiny. It was early characterized by Kim Dong-uk as an adaptation of Japanese Kokugaku (National Learning), and following the academic shift toward post-nationalism, it was further critiqued by Hwang Jong-yeon as a form of "ethnocentric nationalism." Nevertheless, such pejorative assessments often lack empirical grounding regarding the substantive orientation and ultimate objectives of the "nation" envisioned by Cho.

This study directs its attention toward democracy as the quintessential teleology of Cho Yun-je's nationalist discourse, transcending the foundational concepts of autonomy,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While existing scholarship has yet to examine his nationalism through the prism of democracy, this democratic commitment becomes increasingly manifest in his literary scholarship and social praxis during his later years. Notably, this paper appears to be the first to discuss the significance of the Minjok Geonyang-hoe (Association for National Promotion) in relation to his democratic and nationalist ideologies. This study contends that Cho's nationalism can only be accurately elucidated when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democracy" or "democratic nationalism."

Keywords: Donam, Cho Yun-je, Nationalism, Democracy, Minjok Geonyang-hoe,

Donam-japji

접수일자: 2026. 3. 31.
심사기간: 2026. 4. 1.~2026. 5. 10.
게재결정: 2026. 5. 10.